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4 차 총회 및 학술대회

일 시 : 1991년 6월 22일 (토)

장 소 : 경희대학교 도서관

시 청 각 교 육 실

대 회 일 정

	<총 회>	사회 : 지영숙 부회장 (성균관대 교수)
9 : 30~10 : 00	등 록	
10 : 00~10 : 40	개 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유영주 교수 (경희대)
	축 사	조영식 총장 (경희대)
	사업보고	이기춘 교수 (서울대)
	재무보고	김명자 교수 (숙명여대)
	임원개선	
	<박사논문 발표>	
10 : 40~11 : 10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김외숙 교수(방송통신대)
11 : 20~12 : 00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의 변화	한경혜 교수 (서울대)
12 : 00~13 : 00	점 심	
	<연구공모과제 발표>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사회 : 이경희 총무 (중앙대교수)
13 : 00~15 : 00	연구개요	이연숙 교수(고려대)
	아동보육	이순형 교수(서울대)
	가사노동관리	이연숙 교수(고려대)
	가족관계	유가효 교수(계명대)
	가계재정 및 주거관리	조재순 교수(교원대)
15 : 00~15 : 30	토 의	
15 : 30~15 : 40	휴 식	
15 : 40~16 : 00	신임회장 인사	
16 : 00	폐 회	
16 : 10	다 과 회	

都市既婚女性の 餘暇活動參與와 餘暇障碍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金 外 淑

I. 서 론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자유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의 증감과 관계없이 현대인은 점차 여가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가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시간적, 경제적, 의식적 면에서의 변화에 따라 여가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여러 영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국민의 여가생활만족도는 특히 낮다. 더구나 주휴 2일제가 보급된 구미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교양오락비의 증가 그 자체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높아진 여가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도 여가문제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볼 때 서구의 경우 산업사회 이후 여가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여가행동에 대한 연구를 축적시켜 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신진통주의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가 명시적 행동을 받아들일만한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여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회과학일반의 조류가 반영되어 여가연구에 있어서도 여가활동에 대한 비참여문제나 여가장애문제를 다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가연구가 증

가하고 있으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참여의 실태 및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연결하여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인 면에서 여가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참여 및 여가장애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여가활동 및 여가장애의 개념을 밝히고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석한 후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여가장애 각각의 전반적 경향, 관련변수에 따른 차이 및 관련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밝히고,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지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II.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기혼여성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인구사회적 변수, 성역할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여가장애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인구사회적 변수, 성역할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도시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여가장

애의 정도와 여가활동참여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여가활동참여와 선호도, 여가장애 지각정도, 성역할특성, 인가사회적 변수 및 기타여가생활을 측정하는 8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본 연구 지도위원회 위원 4인으로부터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계수에 의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대까지의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은 '전국도시지역 토지시가지조사표'(1989)의 서울지역을 모집단

목록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에 의하여 표집하였다.

예비조사 및 사전검사를 거쳐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0년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19일간 가정학전공의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및 연구자(조사원수: 31명)가 직접 해당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면접하였다. 다만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기를 원하는 대상에게는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638명의 조사대상 중 612명을 조사하였으며(95.9%), 7)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6부를 제외하고 606부(95.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여가활동참여도, 여가장애 지각정도의 전반적 경향을

표 1. 여가활동요인

문항	요인명칭 및 요인부하량				
	I 자기 개발	II 가정지향	III 종교 사회참여	IV 사교	V 소일
(강습이외의) 취미활동·자학자습	.73	.17	.04	-.01	.02
문화활동 참여	.64	.24	-.01	.12	-.07
취미강습·교양강좌 참석	.63	.05	.33	.26	.02
운동	.53	.07	.02	.13	-.00
독서·음악감상	.46	.45	.06	-.18	.24
가족과 대화·자녀와 놀기	.07	.74	.06	-.09	-.06
시내 나들이·가족과의 외식	.20	.59	-.15	.26	-.16
음식만들기·집안가꾸기 등	.07	.58	.30	.18	.23
야외 나들이·여행 등	.28	.50	-.11	.12	-.07
종교활동	-.04	.07	.84	-.02	-.03
사회봉사·사회단체 참여	.39	-.07	.63	.15	-.19
계·친목회·동창회 등 모임참석	.26	-.05	.03	.76	-.03
친구·친지·이웃 등 만나기	.03	.38	.10	.68	.17
텔레비전보기·라디오듣기	-.16	.03	-.22	.03	.75
휴식·낮잠 등	.13	-.07	.11	.04	.69
고유치	3.38	1.50	1.24	1.05	1.00
전체변량	22.5	10.0	8.3	7.0	6.7

R sq.=0.545

N=606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여가활동과 여가장애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장애의 지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각 변수별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일원분산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별하위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을 하였다. 관련변수를 통제한 후 각 변수의 독립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관련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한 후 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장애지각정도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방법 외에 카이제곱검증 (χ^2 -test)과 티검증(t-test)을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X 및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여가활동의 유형 (연구문제 1) (표 1)
2. 여가활동참여 (연구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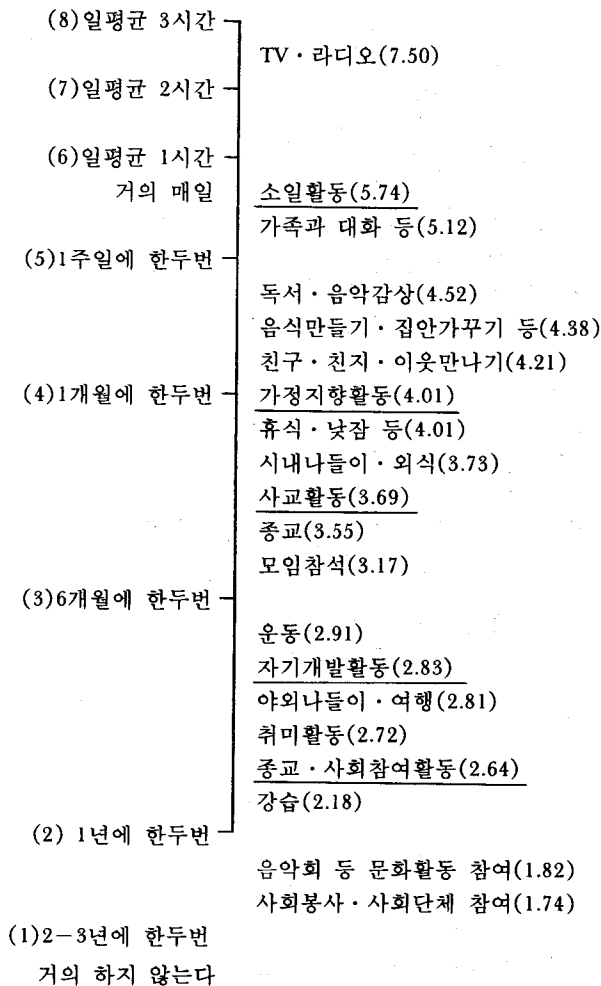


그림 1. 여가활동참여도의 전반적 경향.

- 1) 여가활동참여도의 전반적 경향 (그림 1)
 - 2) 관련변수별로 본 여가활동참여도 (표 2)
 - 3)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 (표 3)
 - 4)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간의 관계(연구문제 4)
- 2) 관련변수별로 본 여가장애 지각정도
 - 3) 여가장애지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
3. 여가장애지각 (연구문제 3)
 - 1) 여가장애지각의 전반적 경향

표 2. 관련변수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의 차이
(일원분산분석결과 요약)

활동	취업여부	연령	막내자녀연령	교육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
자기개발	***	.	**	***	***	***
가정지향	***	***	***	***	***	*
종교·사회	*	***	***	.	.	.
사교	***	***	***	*	***	.
소일	***	.	.	.	**	***

. : N.S. * P<.05 ** P<.01 *** P<.001

표 3. 영역별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독립적 효과
(중분류분석결과 요약)

활동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교육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	R sq.
자기개발	**1)	.	***	.	***	.23***
가정지향	***	***	***	***	**	.19***
종교·사회	.	***	.	.	*	.12***
사교	***	***	.	*	.	.15***
소일	***	.	.	.	*	.16***

1) 취업여부와 막내자녀연령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형변수

. : N.S. * P<.05 ** P<.01 *** P<.001

표 4. 분석방법별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효과

활동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교육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	
	A 1)	M 2)	A	M	A	M	A	M	A	M
자기개발활동	***	***3)	**	***3)	***	***	***	.	***	***
가정지향활동	***	***	***	***	***	***	***	***	*	**
종교·사회활동	*	.	***	***	*
사교활동	***	***	***	***	*	.	***	*	.	.
소일활동	***	***	**	.	***	*

1) A : 일원분산분석결과 차의 유의도

2) M : 중분류분석결과 차의 유의도

3) 중분류분석에서 취업여부와 막내자녀연령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형변수

. : N.S. * P<.05 ** P<.01 *** P<.001

표 5. 여가장애 지각정도의 전반적 경향

여가장애 영역(문항)	평 균	표준편차
시간장애	2.66	0.94
· 시간부족	2.75	1.04
· 휴일부족	2.56	1.05
비용장애	2.87	0.86
· 비용과다	2.87	0.86
개인적 장애	2.59	0.78
· 마음의 여유	2.73	0.96
· 피곤	2.45	0.97
가족적 장애	2.45	0.79
· 집을 비울수 없다	2.42	1.06
· 동반자 부적합	2.47	1.01
사회적 장애	2.25	0.69
· 시설·장소 부족	2.36	0.95
· 프로그램 부적합	2.16	0.89
· 가족의 동반자 부적합	2.22	0.94
전 체	2.56	0.49

표 6. 관련변수에 따른 장애지각의 차이

(일원분산분석결과 요약)

장 애	취업여부	연 령	막내자녀 연 령	교 육	가 계 총소득	성역할 특 성
시 간	***	**	**	.	.	***
비 용	*	.	.	***	***	*
개인적	***
가족적	*	.	***	.	*	.
사회적	.	.	.	*	***	.
전 체	***	**	*	***	***	.

. : N.S. * P<.05 ** P<.01 *** P<.001

V. 논 의

1. 여가생활에 있어서의 취약집단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을 근거로 할때 취업여성, 막내자녀의 연령이 5세이하인 여성, 교육수준과 가계총소득이 낮은 여성, 비양성적 성격특성을 가진 여성이 여가생활에 있어 취약집단 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방향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해지지만 이러한 방향은 곧 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전체 적으로 획일적인 근거에서 제공되게 되는 결과와

쉽게 연결된다. 따라서 취약집단의 존재를 고려 한다면 공공정책에서 유효한 개념은 수평적인 평 등(equality)이 아니라 오히려 표적마케팅(target marketing)과 형평(equity)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취약집단 중 특히 취업여성 및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여가생활문제를 논의하 였다.

2.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전망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이는 사회구조의 변화, 여가선호와

여가장애를 검토해 보면, 여가생활이 생활전반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여가활동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밝혀진 시간장애와 비용장애가 점차 해소되면서 사회적 장애를 지각하

는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의 여가선호가 여가활동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표 7. 여가장애지각에 대한 관련변수의 독립적 효과
(중분류분석결과 요약)

장 애	취업여부	막내자녀 연 령	교 육	가 계 총소득	성역할 특 성	R sq.
시 간	***	***203***
비 용	.	**	.	***	.	.162***
개인적	***102***
가족적	*	**056**
사회적	.	*1)	.	*	.	.062**
전 체	***	.	.	**	.	.116***

1) 취업여부와 막내자녀연령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형변수
· : N.S. * P<.05 ** P<.01 *** P<.001

표 8. 분석방법별 여가장애지각에 대한 관련변수의 효과

	취업여부		막내자녀 연 령		교 육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	
	A 1)	M 2)	A	M	A	M	A	M	A	M
시 간	***	***	**	***	***	.
비 용	*	.	.	***	***	.	***	***	*	.
개 인적	***	***
가 족적	*	*	***	**	.	.	*	.	.	.
사 회적	.	*3)	.	.	*	.	***	.	.	.

1) A : 일원분산분석결과 차의 유의도
2) M : 중분류분석결과 차의 유의도
3) 중분류분석에서 취업여부와 막내자녀연령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형변수
· : N.S. * P<.05 ** P<.01 *** P<.001

표 9.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지각간의 상관관계 (N=592)

장애지각 활동참여	시 간	비 용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개발	-0.20***	-0.64	-0.28***	-0.20***	-0.11**	-0.25***	2.83	1.06
가정지향	-0.13**	-0.17***	-0.24***	-0.07	-0.02	-0.23***	4.01	0.77
종교·사회	-0.11**	0.57	-0.13***	-0.14***	-0.07	-0.09	2.64	1.35
사 교	-0.25***	0.00	-0.27***	-0.13**	-0.06	-0.22***	3.69	1.00
소 일	-0.32***	0.14***	-0.15**	0.14***	0.15***	-0.10	5.74	1.37
평 균	2.66	2.87	2.59	2.45	2.25	2.56		
표준편차	0.94	0.86	0.78	0.79	0.69	0.49		

** P<.01 *** P<.001

다음으로 여가활동영역별 관련변수들의 추세에 따라 여가활동참여의 경향을 전망해 보면 전반적으로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 소일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이들 활동을 위한 시설·설비, 프로그램 등 여건의 조성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첫째, 도시기혼여성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은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도시기혼여성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소일활동 및 가정지향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낮다.

셋째, 도시기혼여성은 여가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개인적 장애를 비교적 많이 느끼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간에는 대체로 약한 負的 관계가 있으나 소일활동의 경우 시간장애를 제외한 기타 장애의 지각과 政的 관계를 보인다.

다섯째,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을 중심으로 볼 때 취업여성, 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 교육과 가계총소득이 낮은 여성, 비양성적 특성을 가진 여성이 여가생활에 있어 취약집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활동영역에 따라 참여도에 대한 관련변수별 차이의 유무 및 그 정도가 다르나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가장 큰 독립적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취업여부이며, 성역할특성과 막내자녀연령, 교육도 독립적 효과를 보이는 활동영역이 많다.

장애영역에 따라 관련변수별 차이의 유무 및 그 정도가 다르고 장애전체로 볼 때 성역할특성을 제외한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교육, 가계총소득에 따라 장애지각정도의 차이가 유의하다.

여섯째, 사회구조의 변동, 여가선호, 여가장애 및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추세를 고려할 때 여가대중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앞으로 여가개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자기개발활

동과 가정지향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TV시청 등 소일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시간 및 비용장애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장애가 중요하게 지각될 것으로 보아 국민의 여가욕구에 부응한 여가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교육과 가계총소득, 성역할특성에 따라 여가생활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집단의 특성에 따른 여가생활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제 언

결론 및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제한점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와 관련하여 첫째, 여가활동참여 또는 여가장애지각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활동 또는 장애의 수준(개별요소/영역/전체)을 명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결과의 해석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활동 또는 장애가 상호관련된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장애지각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영역 또는 여가장애영역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을 일반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지각에 관한 보다 진전된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변수들의 활동참여 및 장애지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여가행동에 대한 사회화과정의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상황적 특성 중에서도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가활동선택에 관한 이론의 검증, 여가활동영역별 여가장애분석, 장애지각과 실제 상황과의 관계분석,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의 불이익집단에 관한 심층적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가선호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함께 여가선호, 여가장애, 여가활동참여를 하나의 모형

에 포함시켜 이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역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여가생활의 주체화, 공유화, 사회화를 지향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도 앞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본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첫째, 여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여가정책과 관련된 점으로서 국민의 여가향수욕구를 균등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 남성의 결혼 연령의 변화

- “가족전략”이라는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한 경 혜

I. 문제제기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결혼 연령의 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이를 산업화에 따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Goode, 1963; Smith, 1980). 즉 산업화와 함께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젊은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결혼시기를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게 되었다고(Sorenson, 1984) 이것이 결혼연령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관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식의 근대화 이론에 기초한 “부모 영향력의 감소가 결혼연령 변화의 핵심(wagnign parental control as locus of change)”에 있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결혼시기의 결정이 부모 내지 가족의 손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전이되었다는 이러한 관점은 사회변화와 그에 연결된 가족 변화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겠다. 부모 영향력의 감소가 결혼 행동 변화와 수반되었기는 하나 변화 자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입장으로, 사회 변동과 결혼 연령 변화와의 관계를 가족의 적응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가족사 분야와 라이프 코스 사회학(life course sociology)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족전략이라는 개념의 발달은 산업화와 역사적 연구에서 가족이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는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영향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지역마다,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계급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가족이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일종의 가족 전략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연령 패턴 자체가 지역의 가족제도 및 사회경제적 상황과의 연계관계내에서 생존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가족이 집합적 단위로서의 필요와 경제적 자원의 유입/유출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가족원의 결혼 연령을 조절, 통제하였다는 관점이다.

한국에서의 결혼연령의 변화도 부모의 영향력의 감소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자녀의 결혼을 미루고자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장려나 혹은 적어도 묵인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견해이다. 즉 산업화하면서 급격한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자녀의 조혼이 부모에게 의미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였고 따라서 자녀에게 일찍 결혼하도록 하는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결혼의 나이를 늦추도록 권장하는 것이 부모의 이해관계와 일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부모가 자녀결혼과 연결시켜 cost와 benefit을 재고 경제적 통제기제를 이용하여 부모측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manipulate한다는 가정 위에 기초한다. 역사적, 인류학적, 그리고 life course 분야에 이에 관한 충분한 문헌적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Tilly, 1979; Hareven, 1978; Salaff, 1981).

II. 이론적 배경

가족이 변화하는 사회에의 적응전략의 하나로 결혼연령을 조절하였다는 견해는 라이프 코오스 사회학의 가족 전략 연구에서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다. 라이프 코오스는 개인이 연령에 의해 분화된 일련의 역할과 인생 사건들(age-differentiated roles and events)을 경험하면서 살아나아가는 생애과정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애과정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인식되는, 연령과 관련된 역할의 전이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agested & Neugarten, 1984). 이 관점에서는 특히 개인의 행동과 가족의 집합적 행동과의 상호관련성이 인생 주기에 따라, 그리고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Elder, 1978 ; Hareven, 1975). 이러한 역동적 과정은 개인 시간(individual time), 가족시간(Family time), 그리고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 이라는 세가지 측면의 시간의 상호 작용으로 (Elder, 1981 ; Hareven, 1975) 개념화된다.

III. 연구문제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근세 한국에서의 결혼 패턴의 변화는 자녀결혼에 대한 부모 영향력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변화에 대한 가족의 전략적 반응의 일환으로 부모전략의 변화”에 기인하는가? 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4개의 구체적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결혼연령 규범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위해: 결혼연령의 변화가 일어날 당시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몇 살이었는가? 늦게 결혼한 자녀들은 늦은 결혼을 선호한 것인가? “부모 영향력 감소” 가설 대로라면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선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결혼시기의 결정이 본인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나 아니면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나? 결혼연령 결정하는데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

가? 이와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셋째, 부모의 손자녀를 얻기위한 욕구와, 아들의 결혼전에 부모에 대한 경제적 기여, 그리고 결혼 후의 분가여부가 아들의 결혼 연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early marrier들과 late marrier들간에 이런 변인에 있어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본 연구자가 특별히 관심있는 연구문제로 “혼합전략(mixed strategy)”에 관한 것이다. 혼합 전략 개념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발달되어 쓰여졌는데, 부모가 자녀들 중 한명, 대개 장남에게 가계승의 역할을 기대하며 그에 따라 자원 및 결혼압력을 형제간에 불균형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들의 marriage career에 대한 태도가 장남과 later-born들과 차이가 있는가, 즉 의도적으로 구별하는가, 장남과 차남 이하의 아들들간에 결혼연령의 차이가 있는가의 질문이 넷째 연구문제이다. 또한 출생순위의 영향이 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IV. 연구방법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의 결혼연령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었다. 따라서 구술 생활사 방법(oral life history technique)을 이용하는 심층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 Sample

38쌍의 아버지·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나, 실제 자료의 수집은 여러 여건상 한 시점에서 행해지게 되므로 시간대를 확대하기 위해 두가지 전략이 채택되었다. 그 하나가 아버지 sample의 선정, 분석에 있어 이들을 cohort 별로 나누어 비교 함으로서 역사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도입하려고 하였다. 둘째 방법이 아버지와 아들 쌍을 선정 단위로 한것이다. 원래는 한사람을 조사하는 것 보다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부자를 선정하였는데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를 비교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버지 sample의 cohort간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대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버지 sample은 조사가 시행된 1988년 현재 60~90세 사이의 노인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1899~1929년 출생으로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1930~1935년 사이에 결혼할 만한 나이에 도달했거나 혹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이므로 선정된 것이다. 이들은 6개의 5-year birth cohorts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아들 sample은 아버지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1899~1904 cohort에 속하는 아버지들의 아들은 아버지 sample의 가장 어린 cohort와 겹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의한 “세대(generation)”과 “동시집단(cohort)”의 중복을 막기 위해 아들 sample은 60세 이하로 국한하였다. 출생순위와 결혼연령관계를 보기 위해서 모든 sample은 결혼할 당시 적어도 한 명의 남자형제가 있도록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부·자 쌍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계층화하여, 경기도 평택군과 화성군의 농촌에서 20쌍, 도시(서울, 수원, 대전)에서 18쌍을 조사하였다. sample 선정 과정은 snow ball technique에 의한 편의 sample이었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1988년 8월에서 1989년 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연구자 본인에 의해 직접 수행된 면접은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응답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면접과정은 Oppong(1980)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qualitative information을 수집할 때 사용한 방법, 즉 focused interview(Merton, Fiske, & Kendall, 1956) 방식을 따랐다. 면접은 응답자의 양해를 얻은 후 녹음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면접을 꺼린 응답자는 없었으며, 면접시에 녹음기의 존재를 특별히 인식하는 응답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3. Coding 및 분석

녹음된 자료의 필사본을 이용하여 coding 작업이 이루어졌다. 질적자료 분석을 위한 coding scheme은 필사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post hoc으로 개발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반복적 읽기

후에 주제를 발견,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응답의 coding이 행하여졌다.

자료의 해석에 있어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통제의 감소”가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증가를 가져온 동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각 연구 문제 별로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겠다.

1. 결혼연령의 규범적 측면

본 연구는 한국 남성들에 있어 결혼에 관한 연령 규범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응답자들은 그들의 결혼 당시의 “결혼적령기”를 듣는 질문에 어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결혼연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질문받기 전에 스스로 “나는 결혼이 일었어요” 라든지 “혼기를 놓친 셈이었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연령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아들세대에 오면서 감소되는 방향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의 취향과 융통성을 고려하는 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세대에서 결혼 행동과 연령규범 간에 두가지 종류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G1 세대들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규범적 결혼 연령과 그들의 실제 결혼 연령과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1940~1953년도 사이에 결혼한 G1 세대 중 80% 이상이 자신들이 규범적 연령이라고 지각하는 나이보다 늦게 결혼하였다. 16~20살을 규범적 적정 연령으로 본 반면 실제 결혼 연령은 20~27 세의 분포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G1 응답자들은 그들의 “주관적 시간표”에서 late marriers”들에 속하였다. 이러한 불일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나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불일치가 G1 응답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즉 문화적 연령 규범(cultural norm)과 통계적 규범(statistical norm)과의 불일치이다. G1 응답자가 지각하는 문화적 규범은 통계적 규범연

령보다 훨씬 낮았다. 예를 들어 1920~1929 cohort에 속하는 G1 응답자들은 그들의 결혼 당시의 규범적 연령이 13~18세라고 응답하였는데 반해, 1920년 당시 통계적 평균 결혼 연령은 20.5세였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G1 응답자들중 당시의 평균 결혼연령에 가까운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늦게 결혼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즉 많은 G1 응답자들이 그들이 속한 cohort에서 결혼연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규범에서 일탈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이 갖는 이론적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 이러한 커다란 불일치는 결혼행동패턴이 변하고 있을 때, 규범은 행동보다 천천히 변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gap은 행동변화가 워낙 급속한 속도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겠다.

둘째, 이러한 발견은 life course 연구에서 통계적 규범과 문화적 연령규범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개념은 일견 명백히 구분되는 듯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통계적 규범을 마치 문화적 연령규범인양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또한 연령규범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G1 응답자들을 cohort간 비교를 한 결과 10대 초기에서, 10대 중반, 그리고 20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관찰되었다. G2 응답자들은 26~28세를 규범적 결혼연령으로 보고하여 세대간의 변화폭이 큼을 보여주었다. G2 응답자들중 cohort간 비교에서는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G1 응답자들의 아들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응답에서 결혼연령 규범의 변화를 또한 명확히 볼 수 있었다. G1 응답자들과 G2 즉 아들 응답자들과 모두 26~28세를 규범적 연령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아버지 세대들이 그들 아들세대의 결혼연령을 정하는 데는 자신들의 세대때와는 다른 사회적 시계(social time clock)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영향력 감소” 가설과는 반대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아버지 응답자들의 65.8%가 아들의 결혼을 일르거나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는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노인세대도 결혼연령 규범에 정태적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세대를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단순화하는 시각의 탈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변화의 시각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는 결혼연령 변화 당시의 가족과 개인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한 풍부한 심층자료를 제공해 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규범적 연령보다 일찍 혹은 늦게 결혼을 하도록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late marrier”들이 대부분이었던 G1 세대의 경우 4가지 주요 theme을 늦은 결혼의 원인으로 밝혀 낼 수 있었다. 첫째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 둘째, 신부감을 찾기 어려웠던 점, 셋째, 전쟁에의 참여, 그리고 넷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원인들은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가족이 경험했던 사회적 상황들이 어떻게 개인의 통제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life course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준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친 농촌가족은 자녀들을 도시로 보냈고, 이들 자녀들은 임금이 가족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결혼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고향 부모에게 적은 수입의 일부라도 송금을 했던 G1들은 그렇지 않았던 G1들보다 늦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으로는 조혼이 이상적으로 선호되었지만 젊은이들은 새 가족을 “먹여살릴” 약간의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혼의 선결조건으로서의 경제적 능력”이라는, 그 당시의 한국가족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이런 맥락에서 이때 탄생된 듯하다. 부모들은 아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걱정을 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생존이 우선이었으며, 딸을 가진 부모들은 가난한 가정에 딸을 주기를 꺼려 가난한 G1들은 신부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G1 세대에서는 결혼연령과 경제적 지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조혼은 부유한 층의 특권이 었다. 심지어는 전쟁이 결혼연령에 끼친 영향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전쟁에 차출되었을 때 경제적 형

편이 허락하는 부모는 아들을 서둘러 결혼시킨 반면, 경제적 형편이 나빴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전쟁에의 참여는 곧 늦은 결혼을 의미하였다.

교육에의 열망때문에 결혼을 늦춘 응답자들의 case는 한국 남성들의 life course에 있어 교육제도의 도입과 이에 의한 결혼 연령의 변화라는 흥미로운 문제를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결혼의 선행조건으로 여기지 않아왔던 한국에서는 교육과 결혼은 life course선 상에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런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 계급체계가 붕괴되어가는 사회에서 부모는 아들의 고등교육을 신분상승의 매체로 인식하였던 듯하며 따라서 아들에게 교육을 포기하고 결혼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G2 세대에 오면 교육의 끝마침이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사회변화와 함께 도입된 의무 병역제도와 고등교육제도가 남성의 life course에서 일종의 결혼가능 최저연령선을 결정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자립가능성이 결혼의 선행조건으로서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하자 이들 다른 제도상의 transition timing이 결혼시기에 갖는 관련성이 증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G2 응답자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력 확보가 규범적 연령보다 늦은 결혼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통제

단지 한명을 제외한 G1 응답자 전원이 그들의 결혼 시기를 집안의 어른이, 대부분은 아버지가 (78.9%)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G2는 응답자 자신이 결정한율이 31.6%로 G2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반적인 결혼행동에 있어 점차 당사자들의 결정권이 강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G2 응답자의 약 2/3가 결혼시기의 주된 결정권자가 부모나 조부였다고 하는 점은 부모의 영향력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G1 세대에 비해 G2 세대는 스스로가 규범적 연령보다 일찍 결혼하였다고 지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찍 결혼한 이유들이 부모의 나이, 부모가 손자를 보기 위해 결혼하기를 중용했다든지, 혹은 G2 응답자가 장남

이라는 등의 대부분 가족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 특별히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많은 흥미있는 이슈를 시사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들이 아들의 결혼 시기로 보는 관점이 아들의 연행이나 일반적 연병규범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며느리를 보거나 손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 빠른가 늦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life course상의 transition timing의 평가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시간표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G1 응답자가 결혼연령에 관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G2 세대의 결혼연령에 관한 G1 과 G2 사이의 갈등도 G1 응답자 중 3명, G2 응답자 중에서는 5명만이 보고하여 “부모 통제감소” 가설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게 나타났다.

4. 부모전략

부모가 아들의 결혼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지각할 때 전략적으로 결혼을 늦췄는가를 알기 위해 첫째, 결혼전 아들의 경제적 기여, 둘째, 결혼후의 거주형태, 셋째, 부모가 손자녀를 원하는 욕구정도의 세가지 변인을 조합하여 parental cost scale을 만들어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G1 과 G2 세대 모두 부모의 비용이 높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응답자보다 늦게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부모 전략” 가설을 지지해 주는 방향을 보였다. 또한 G1 세대에 비해 G2 세대에 있어 부모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혼합전략의 문제

G1 세대에서는 장남이 차남이후의 아들보다 일찍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혼합전략가설을 지지하여 준 반면 G2 세대에서는 출생순위와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볼 수 없었다. 심층 면접에 의해 수집된 많은 case들이 부모가 아들의 결혼연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장남과 차남사이에 차이를 두는 경향이 많아서, 결혼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늦었는가 혹은 일렀는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다른 시간표를 적용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장남의 결혼은 비단 가계계승이라는 의미로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의 “counter-transition” (Hagestad, 1981)의 측면에서도 특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에 있어 경제적 지위와 출생순위와의 관련성은 G1 세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G2 에서는 그 관련성이 예측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부유한 가족에서는 장남은 차남이하의 아들보다 일찍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에서는 차남이하의 아들이 오히려 장남보다 일찍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설의 반대방향인데, 가난한 가정의 장남이 결혼에 있어 안게되는 불리한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응답자들을 경제적 지위와 출생순위에 의해 분류했을 때 실제로 제일 높은 평균 결혼연령을 보인 집단이 바로 이 가난한 가정의 장남들이었다.

* Pennsylvania 주립대학교 인간 발달대학, 가족 및 인간발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본 논문은 미국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에서 제공하는 Dissertation Fellowship 및 Hewlett-Packard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